



국가 R&D 예산 늘어도 출연연 “올상”

최근 6년간 출연연 예산 비중 감소세

출연연 인력도 고령화

□ 민병주 의원(새누리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국가 R&D 예산 및 출연연 예산 추이’에 따르면,

- 최근 10년간 국가 R&D 예산 중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예산(출연금+정부수탁 사업을 통한 예산)의 비중은 30% 수준에서 현재 24% 정도 수준으로 점차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1. 최근 10년간 국가 R&D 예산 및 출연연 예산 추이> 참조

< 표1. 최근 10년간 국가 R&D 예산 및 출연연 예산 추이>

(단위 : 십억 원)

연도	국가 R&D 예산	출연연 예산	비중	연도	국가 R&D 예산	출연연 예산	비중
2005년	6,879	2,362	30.3%	2009년	10,826	3,338	27.0%
2006년	7,717	2,649	29.7%	2010년	11,890	3,511	25.7%
2007년	8,454	2,827	29.0%	2011년	12,821	3,506	23.5%
2008년	9,537	3,030	27.9%	2012년	13,569	3,759	23.5%

*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 참조

- 국가R&D 총 투자액은 국방과제(국방부, 방위사업청)를 제외한 투자금액

* 출연연 예산 : 출연금 + 정부수탁사업비

○ 또한, 최근 5년간 출연연 정규 연구직의 연령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2008년에 비해 2012년의 경우 2~30대의 비중이 크게 줄고, 40대와 50대 이상의 비중이 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 최근 5년간, 20대는 3.7%→3.5%, 30대는 40.7%→31.7%로 감소한 반면, 40대는 35.7%→36.6%, 50대 이상은 19.9%→28.2%로 증가하였음.

* <표2. 최근 5년간 출연(연) 정규 연구직 연령별 비중 분포 추이> 참조

<표2. 최근 5년간 출연(연) 정규 연구직 연령별 비중 분포 추이>

(단위 : %)

연도	총 인원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2008년	8,340명	3.7	40.7	35.7	19.9
2009년	8,358명	3.2	37.8	36.5	22.5
2010년	8,582명	3.2	36.0	36.2	24.6
2011년	8,773명	3.9	33.3	36.1	26.8
2012년	9,119명	3.5	31.7	36.6	28.2

* 해당년도 말 기준

* 자료출처 : 기초기술연구회 및 산업기술연구회

□ 민병주 의원은 “매년 국가 R&D 예산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나 실제로 연구 현장에서는 이를 크게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으며, 미래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출연 연구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연구 노하우를 전수할 젊은 인력이 현저히 부족해지는 현상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것” 이라고 지적하며,

- 또한 “출연(연)이 과학기술기반의 창조경제 시대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만큼 출연연의 예산 배분과 인력 활용 측면에서 발견되는 구조적인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부분” 이라고 지적함.